

Vol. 6 June 2020

Korea MICE Association

해외 MICE 동향 보고

“대한민국 융복합 글로벌 산업의 플랫폼, 마이스!”



Contents

발행일 2020년 6월

▶ MICE Trend (MICE 업계의 트렌드 및 주요 이슈)

Chapter COVID-19 and Disruption in the Incentive Travel, Meetings and Events Industry: Adaptation and Recovery	03
- IRF	
출 처 보고서 발간기관 정보	08

[첨부1] COVID-19 and Disruption in the Incentive Travel, Meetings and Events Industry: Adaptation and Recovery 보고서 원본



MICE Trend

Chapter 1 COVID-19 and Disruption in the Incentive Travel, Meetings and Events Industry: Adaptation and Recovery

발표일 2020. 06. 08 발행기관 IRF

〈주요내용〉

- 본 리포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의 존폐위기에 처한 중소규모의 MICE사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위해 제작됨
- 관련된 최신 뉴스와 연구·분석자료 및 심층 인터뷰, 업계 리더 36명과의 패널토론, 250명이 넘는 업계 종사자들의 투표결과, 전세계 791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됨

1. Part 1: 여행자의 의도와 내부자의 시각 (Traveler Intent and Insider Insights)

Figure 2: Meeting, Conference & Event Travel
Attitudes toward business travel after all COVID-19 restrictions have been removed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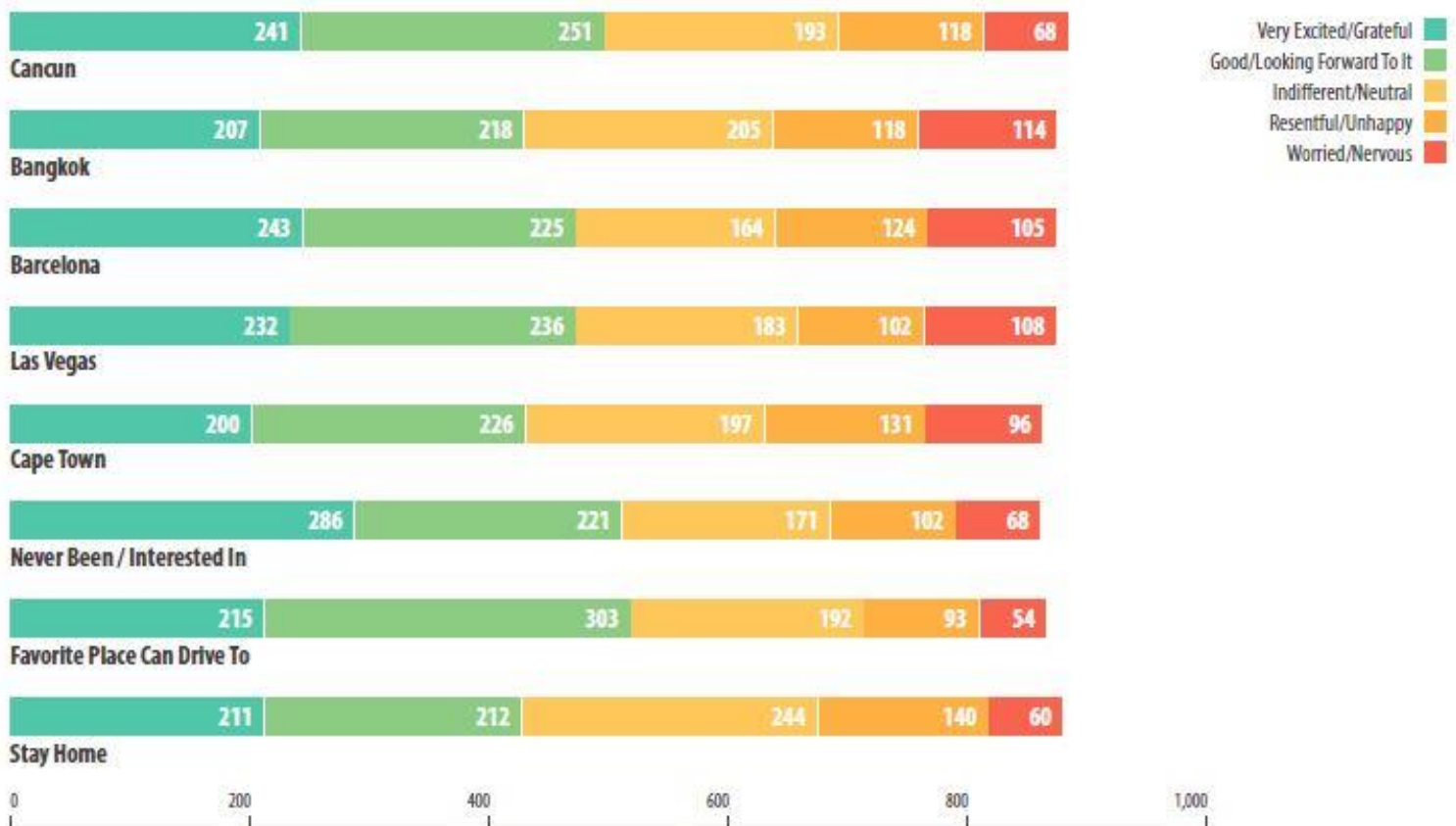
[Chart 1]

- 코로나 19로 인한 제한이 풀린 뒤, 1박 이상으로 업무와 관련된 컨퍼런스, 미팅, 이벤트에 참여 하겠느냐는 질문에 약 57% 이상이 매우 기대되며 그런 상황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응답을 보임
- 위의 표에서는 대륙 별 대표적인 도시의 응답만 담겨 있지만, 본 리포트의 설문조사 참가자와 포커스 그룹 전문가들의 응답 및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시행된 비슷한 내용의 설문조사 응답결과는 대부분이 여행, 특히나 안전하며 운전 가능한 거리의 장소로의 이동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줌

[Chart 2]

Figure 3: Reward Travel

Attitudes toward business travel after all COVID-19 restrictions have been removed



- 업무와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이 사라진 이후 포상관광에 대한 참여의사를 물어봤을 때도, 앞선 결과와 비슷하게 대다수가 위의 5개 도시로의 방문을 매우 기대한다고 응답함.
- 단, 미팅과 이벤트 참가를 위한 여행 참여의사 질문에서는 29%가 매우 기대된다고 응답하였지만, 포상관광 참가 의사 질문에서는 약 23%만 매우 기대된다고 응답했다는 작은 차이점이 보임.
- 또한 포상관광에 참여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중의 약 50.5%는 일주일 휴가를 받아서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함.
- 그러나 비즈니스 미팅이나 포상관광 참여에 대한 높은 의지를 표한 사람들은 모든 나이 대(18~45세)에서 6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. 46세 이상의 나이 대 에서만 참여 의지가 약간 줄어듦.



[Chart 3]

Figure 4: Reasons respondents would cancel or postpone business or reward travel after all COVID-19 restrictions have been removed



-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들이 사라져도 비즈니스 미팅이나 포상관광을 취소 하겠다는 응답자들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이나 주변사회에 퍼진 팬데믹 상황, 최근의 테러나 총기난사 사건, 예보된 위험한 날씨상황 등의 순으로 보여짐.



2. Part 2: 단기 생존 및 빠른 회복을 위한 실용적인 조치와 정책

(Practical Actions and Measures for Near-Term Survival and Faster Recovery)

- 본 리포트를 위해 인터뷰하고 토론에 참가한 많은 MICE 리더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근의 상황이 이때까지 경험했던 9/11 사태나 2009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보다 생존에 위협을 받을 만큼 훨씬 더 힘들고 심각하다고 얘기함.
- MICE 리더들은 지금은 현재의 생존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지만, 2021년에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고있다고 함. 그러나 9/11과 2009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은 이들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, 정상적인 비즈니스와 수익 복귀는 위기 종료 후 최소 2년은 걸린다고 함.
-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되어 대량생산 및 보급이 가능할 때까지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복귀가 어려울 것이며, 2022년 말이나 2023년쯤 을 복귀 가능 시기로 예측하고 있음.
- 올해 1~2월까지 만 해도 업계종사자들은 행사 연기를 고려했지만 5월에 들어서서 부터는 회사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연기보다는 행사 취소를 하고 있음. 이로 인해 인센티브 투어 및 미팅&이벤트 기획자들이 더 힘든 상황에 처하고 있음.
- DMC 회사들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시해고 상태이며, 2021년까지도 인센티브 그룹은 취소 된 상황임.



* 뉴노멀 시대 대비 실행 방안

1. 고객센터, 직원 참여도 & 관계 (Customer Service, Employee Engagement & Relationships)
 - 사회 연결성이 핵심. 호텔, 베뉴와의 협력과 관계 유지가 이후의 비즈니스를 위해 매우 중요함.
 -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상품이나 기프트 카드, 포인트 지급 등의 대체 상품 기획도 필요함.
2. 세일즈 (Sales)
 -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새로운 니즈에 준비해야 함. 고객과 논의할 수 있는 안전하고, 지역 특색이 분명하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외부 장소에 대한 리스트를 발굴해야 함. 리조트 매입, 육로교통, 전세기, 새로운 룸 세팅 및 가상의 옵션도 고려해야 함.
3. 전략 (Strategy)
 -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. 청소, 사회적 거리 유지, 행사장에서의 열감지기 및 의료진 배치 필수화.
 - DMC, 식당, 장소, 공급자, 지자체, 경찰, 보건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.
 - 가상 및 하이브리드 이벤트 기술자와도 연락체계 구축 필요.
4. 합법성과 분열 관리(Legalities and Disruption Planning)
 - 프로그램 참가자와 스태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. 행사장에서의 위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함.
 - 파트너 및 DMC와 협력하여 위기 발생 시, 현지 경찰과 지자체 담당자와 정확한 정보 습득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해야함. 이벤트와 행사장에 대한 비상안전 대책 가이드라인의 문서화 필요.
 - 행사 전 참가자와도 개인의 안전관련 협조와 책임에 대해 충분한 소통 필요.

3. 결론

- 본 리포트에 사용된 데이터, 인터뷰내용, 전문가 그룹의 의견 등을 취합하면 개인의 국내 및 해외 여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가 사라지면 다시 복귀가 되겠지만, 단체여행이나 장거리 여행은 백신이 개발되고 대량 공급되기 전까지는 단기간 내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- 또한 대규모의 이벤트나 장기비행이 동반되는 그룹 인센티브 투어는 코로나 이전의 규모로 진행되려면 최소 18개월에서 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임.



출처

*IRF(Incentive Research Foundation)

- 전세계 인센티브 투어 시장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음
-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보고서, 연구자료, 교육 프로그램, 행사개최와 같은 활동을 함
- 공식홈페이지: <https://theirf.org/>
- 보고서 원본: [첨부1] 파일 참고





※문의: 한국MICE협회 김규리 파트장
(T. 02-3476-8326 Email. krkim@micekorea.or.kr)

* 본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MICE협회에서 제작한 'MICE고딕체'와
'MICE명조체'로 작성되었습니다.

